

중등교사 임용시험(제1차 시험) 채점 기준 공개 및 재채점(재검토) 요청 등에 대한 답변

1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	--------------------------

- 서술형, 논술형과 같은 주관식 시험에서는 정답이라고 하지 않고 모범답안이라는 표현을 사용 합니다. 그것은 모범 답안 외에도 타당한 유사답안이 매우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범 답안을 공개하게 되면, 그 외의 많은 유사 답안을 작성한 응시자는 모두 이의 제기를 할 것이고, 그것의 타당성 여부 논란과 심사 등으로 지금 같은 임용시험후보자 선발 일정 속에서는 임용시험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등교사신규임용전형공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등의 서술형 시험에서도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은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중등임용시험의 채점기준과 출제근거 공개 관련 행정심판(2017-3597)에서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농후한 점, 업무 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평가업무 수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 시험업무의 일관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공개 되어서는 않된다.”라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채점 기준에는 유사 답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외에도 이의 신청, 채점위원 연수, 몇 차례의 가채점, 채점 도중에 발견되는 유사 답안은 모두 타당성을 확인하고 채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생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한다.

2	답안지를 재검토(재채점)하지 않는 이유는?
---	-------------------------

- 주관식은 채점자에 따라 채점의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즉, 채점자의 전문적 주관성을 인정하는 시험으로, 여기에는 서술형, 논술형 등이 이에 속합니다. 주관식은 채점의 객관성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사고력,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력 평가 등 타당도 측면에서 더 우수하기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출제하는 문항 유형입니다. 즉, 주관식 시험은 어느 정도의 채점자의 전문적 주관성을 인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채점자별 채점의 오차를 수용하는 시험입니다.
- 그러나 임용시험에서는 주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채점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채점자 연수 및 가채점, 채점자 3인의 독립채점 및 합산 평균 점수 산출, 채점자 간 점수 차가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재채점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러한 채점 절차는 매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점은 매년 일관성 있게 진행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자에 따라 점수차가 매우 크게 느끼는 경우 중 일부는 응시자 유의 사항에 위배되게 작성한 경우(응시자 정보노출, 타 문항 번호 답안란에 작성 등)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답안지 확인 여부는 응시한 시·도 교육청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 10대 1, 높은 경우는 30대 1의 치열한 경쟁 체제인 국가 수준의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응시자 개개인의 사정을 다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한 출제와 채점 업무 관리가 전국의 모든 응시자를 배려하는 최선의 방안임을 인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 따라서 특정인의 답안지 재검토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할만한 타당한 재검토 사유가 없는 현 상황에서 답안지를 재검토하는 것은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